



### 03 사람들면

예술, 인문학과 만나다  
신설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인터뷰

### 04 학교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2024 학사 구조 개편

### 05, 06 특별기고

사범대학, 2023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단기해외교육봉사

## 60년, 그 너머를 향한 전주대학교 신문사

전주대학교의 공식 언론 매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전주대학교의 소식을 신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59년간 유지한 체제를 바꾸고 도전해

1965년 출발해 59년간 달려온 전주대학교 신문사가 올해 새롭게 개편됐다. 오랫동안 고수해 온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할 독자들을 위해 신문사 기자가 직접 알아봤다.

#### 전주대학교 신문사를 소개합니다.

전주대학교 신문사는 미디어센터 산하의 학생 주도 공식 언론 매체다. 전문 언론의 객관성과 더불어 학생만이 쓸 수 있는 날것의 글을 추구한다. 또한 재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내 언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매달 한 번 발간되는 PDF의 지면 구성은 여섯 갈래로, 교내 소식을 전하는 뉴스면, 졸업생이나 재학생 인터뷰가 올라오는 사람들면, 문화 가치의 실현을 노력하는 기획면, 외국인 재학생들을 위한 GLOBE면, 그 외 정보를 알리는 광고면이 있다. 부서는 취재부와 편집부 총 2개로, 취재부는 기사 보도를, 편집부는 시각 자료를 담당한다. 교내 소식 취재는 소속 기자 12명 전부 참여한다.

#### 기존 신문사와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매 학기 총 5번 발간했던 방식과 다르게,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달 최소 10개의 기사를 상시 보도해 시의성을 높였다. 동시에 매달 주요 소식을 종합한 PDF를 발간하여 기록물로서의 보존성을 높인다. 또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학우들에게 친숙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 소식을 알릴 예정이다. 이는 다플랫폼과 다채널의 미디어 시대에 발맞추는 한편, 환경 문제도 적극 고려하여 대처한 변화다. 또한, 대학 내 신문사라는 특성에 초점을 맞춰 교외 보도를 줄이는 만큼 교내 소식을 더욱 풍성하게 전할 예정이다.

####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2024년 미디어센터장에 새롭게 취임한 영어교육과 최소담 교수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시각에서 보다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비전을 전했다. 긴 시간 굳어진 체계를 바꾼 만큼 이번 개편의 의의가 크다. 멈춰있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와 결을 함께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계기로 기존 독자들뿐만 아니라, 유입된 독자들 또한 새롭게 탈바꿈한 전주대학교 신문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주대학교 신문사 소식은 변경된 홈페이지 전주대학교 미디어센터(<https://jj.ac.kr/jjnews/>)와 인스타그램(@jnbs\_news)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대학신문사 편집실(063-220-2442) 또는 [news@jj.ac.kr](mailto:news@jj.ac.kr)로 할 수 있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mailto:uptoillie20@jj.ac.kr))

### 2024학년도 1학기 미디어센터 사령

#### ■대학신문사 임명

[편집장]  
강수아(영화방송 21)

[취재부]  
부 장 | 전지은(한국어문학창작 23)  
정기자 | 오유진(행정 21)  
양예은(한국어문학창작 20)

#### ■교육방송국 임명

[국장/부국장]  
국 장 | 김경인(중등특수교육 22)  
부국장 | 김찬규(상담심리 23)

[운영부]  
부 장 | 최윤서(방사선 22)

[기획부]  
부 장 | 최윤주(중등특수교육 22)  
일반국원 | 이서현(영화방송 23)

일반기자 | 마경진(한국어문학창작 20)

[편집부장]  
부 장 | 송단비(영화방송 21)  
일반기자 | 권주익(영화방송 21)  
이수용(패션산업 19)

위 사람을 3월 27일부로 상기직에 임명함.

[기술부]  
부 장 | 박대한(영화방송 23)

[편집부]  
부 장 | 서아현(사회복지 21)  
일반국원 | 김혜은(영화방송 23)

[아나운서부]  
부 장 | 임수경(행정 21)  
일반국원 | 한예진(시각디자인 23)

위 사람을 3월 27일부로 상기직에 임명함.

## 미디어센터를 소개합니다

### 01 '미디어센터'란?

전주대학교 미디어센터는 학내 구성원과 지역 사회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언론활동을 펼치는 센터입니다. 미디어센터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학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학내 구성원들에게 미디어 제작 지원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 구성원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전주대 대표 언론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02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일은?

- PDF 신문 발간, 인터넷 신문 운영
- 방송(라디오) 송출과 행사 취재 및 뉴스 운영
-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육

## '신입생! 바라다줄게, 바래? 다 줄게!' 신입생 환영 프로그램 개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학생회관 로터리 일대에서 신입생 환영 프로그램 '신입생! 바라다줄게, 바래? 다 줄게!'가 개최됐다.

신입생 적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33개의 중앙 동아리 홍보 부스, 9개의 진로·전공 탐색 지원 부스, 8개의 대학 생활 지원 부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우들은 진로·전공 탐색 기회를 통한 학습 선택권과 선배·동기들과 관계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행사 운영본부는 두 가지의 이벤트를 준비했다. 첫 번째는 1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선착순으로 푸드트럭 교환권을 제공하는 이벤트, 두 번째는 학생회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각 부스 프로그램에 3개 이상 참여해 팸플릿에 도장을 채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였다. 특히 첫 번째 이벤트의 상품인 푸드트럭 교환권은 행사가 시작된 지 만나질 만에 소진되면서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총학생회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행사이자, 우리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처음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원활한 진행에 있어 많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1일 차 879명, 2일 차 551명으로 총 1,430명의 참여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비상대책위원장 최도진 학우는 "신입생을 위해 총 23명의 인원으로 Task Force팀(이하 TF)을 구성했다. 이벤트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지만, 자치기구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개선하는 게 먼저였던 것 같다. 봉사해 준 TF팀과 도움 주신 교직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행사에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마경진 기자(alfpwnsgh12@jj.ac.kr)



## '새로운 시작을 앞둔 너에게, 지금처럼 빛나길'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2월 21일, 우리 학교 JJ아트홀에서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학위수여식은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각 단과대학별로 선정된 졸업생(학과별 학위수여자 대표 및 수상자)이 참석하여 자리를 지켰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835명, 석사 108명, 박사 61명 등 2,004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학교 곳곳에는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우리 학교 공식 마스코트인 제이제이와 포토타임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됐다. 거세게 내리는 비에 장소 이동과 야외 촬영에 제약이 있었지만, 긴 여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졸업생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졸업한 사범대학 김다희 학우는 "챗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대신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던 4년이였다. 나의 청춘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주었던 전주대학교와 가정교육과에 고마움의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학위수여식에 참여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교무처 학사지원실(스타센터 234호)에서 학위증을 수령할 수 있다.

|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 2024 StarT Program, 아는 만큼 보인다

StarT Program은 우리 대학 재학생을 "Superstar", 즉 사회적 인정을 받는 전문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CP(Certification Point: 인증 포인트)와 SP(Scholarship Point: 장학 포인트), 그리고 활동 성격에 따라 '라이징 스타, 수퍼루키, 커리어챌린지'로 분류되는 특별 장학금을 각종 교내·외 활동 수행 시 지급하는 특성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

CP와 SP는 재학생이 해외체험학습, 개인 및 팀 프로젝트 등의 '도전 정신 함양 활동'과 융합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등의 '능력 개발 활동', 기부, 헌혈, 사회봉사 등의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수행할 시 성과에 따라 해당 항목의 환산 점수를 부여한다. 추후 개인별 CP와 SP 합산 고득점자에게는 총장 인증서 수여, 자기 계발 향상 장학금 지급 등 추가 특전이 있다.

StarT Program 신청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우리 대학

홈페이지 온스타 StarT 배너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각 단과대학 CA실에서 관련 서류 제출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진로개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 하늘 기자(neul0603@jj.ac.kr)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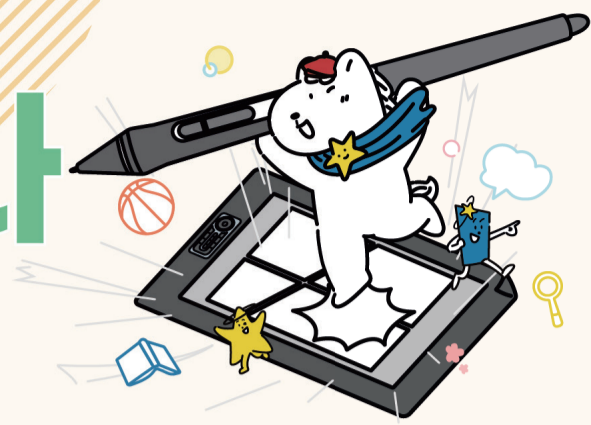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창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간 | 최소담  
편집장 | 강수아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 예술, 인문학과 만나다

## 신설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인터뷰



학과장 조윤숙 교수

**Q. 웹툰만화콘텐츠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분들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만화콘텐츠학과장 조윤숙 교수입니다. 저는 잡지 '윙크'에서 신인 만화가로 데뷔 후,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및 멀티미디어를 폭넓게 공부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에서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기획을 가르치다가 웹툰만화콘텐츠학과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Q. 웹툰만화콘텐츠학과를 처음 접해보는 학우분들께 간단한 학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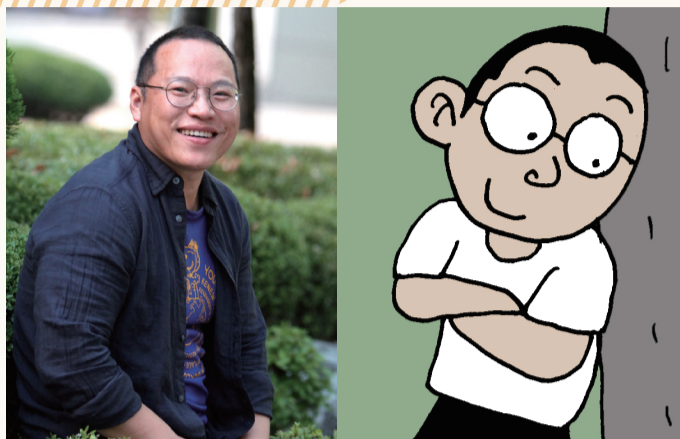
**A.** 우리 학과는 웹툰을 만드는 것보다 작가 양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의 삶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어야 경험을 토대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은 이야기이고, 대학 생활도 그 일부입니다. 따라서 조별 활동을 통한 협동성 강화 및 기본기 교육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본기를 위한 드로잉, 세미나, 스토리텔링 등 교육 계획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일 뿐,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작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Q. 최근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웹툰과 관련된 학과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대학의 웹툰만화콘텐츠학과만의 특색이 있을까요?**

**A.** 다른 학교와 다르게 예술대가 아닌 인문대에 자리한 것이 우리 학과의 특징이자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웹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자 어려운 것은 이야기입니다. 연재를 거듭할수록 소재가 줄어드는 것이 창작자로서 굉장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작품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도록 만들고, 잠재된 창의력을 끌어내 아이디어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교수님들이 작가 출신이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웹툰만화콘텐츠학과를 같이 이끌 신입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신입생 여러분, 이 일에 어떤 열정을 갖고 시작했는지 언제나 마음속 울림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해서 돈과 명성을 얻는 일이 당장은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작가라는 직업은 사랑과 열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기에 더욱 진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입생분들 중에서 신설 학과라는 점을 불안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혼자 그리는 것보다, 같이 그리는 게 즐겁고 추억이 됩니다. 오셔서 즐기면 좋겠습니다.



황경택 객원교수

**Q. 웹툰만화콘텐츠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분들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자연을 좋아해서 자연 만화를 그리고 있는 생태만화가 황경택입니다. 만화가인 자기가 그릴 만화를 준비하면서 공부하게 되는데 저 역시 자연 공부를 하다 보니 숲해설가라는 직업도 동시에 갖게 됐습니다. 만화가 겸 숲해설가인 셈이지요.

**Q. 웹툰만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A.** 전주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학과가 인문대학에 개설된 최초의 학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유로 강의를 맡기로 결정했는데, 예술가들이 인문학을 모르면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가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인문학을 중시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혜택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도 없지요. 우리 인간의 삶과 자연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들에게 자연 공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맡은 과목이 '생태놀이와 드로잉'인데, 주로 야외에 나가서 전주대학교 캠퍼스 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연 드로잉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림 실력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도 생길 겁니다. 또한, 단순히 그리기만 하거나 이론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고를 깨워서 더욱 창의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놀이를 중간마다 함께 진행할 겁니다. "대학에 입학했는데 어렸을 때보다 더 재밌는 놀이를 하더라 참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학생들이 반응해주길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웹툰만화콘텐츠학과를 같이 이끌어 나가게 될 학우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이번에 새로 개설돼서 조금 낯설기도 하고, 2학년 선배들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학교에서 교수들이 더 챙겨주고 아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준비한 강의를 즐겁게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누군가 닦아놓은 길도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새로운 길을 가보는 맛도 좋으니까요. 선구자나 개척자의 마음으로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제작 스튜디오(진리관 408호)



이지현 객원교수

**Q. 웹툰만화콘텐츠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분들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웹툰 작가 이지현입니다. 2004년 웹툰을 시작해서 올 국제 만화 공모전, 한겨레 신문사 공모전, 대한민국 창작만화 공모전, 독일문화원 공모전에서 수상했으며 2024년 동학 웹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야오네집>, <펜션 타나토스>를 연재한 후, 책으로 펴냈고 중국과 독일을 거쳐 현재 일본에서 연재 중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업에 5회 선정된 바 있고, 스토리작업을 포함해 3편의 신작을 준비 중인 현재 작가입니다. 클럽 스튜디오와 스케치업을 포함해 디지털 작화 실습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웹툰만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A.** 우리 학과의 목표는 기술자가 아니라 작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웹툰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더라도 평생 작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문학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고, 자신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지적 포용력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학과는 인문학 기반 학과라는 내용적 측면뿐 아니라 외형적인 면에서도 특별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전국의 어느 대학 웹툰 학과보다 월등히 우월한 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는 기업형 스튜디오 못지않은 최고 사양이고, 액정 태블릿도 최신행인 신티크 27로 준비했으며 의자 또한 학생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 시디즈 T50으로 맞췄습니다. 실습실 시스템만 봐도 국내 최고지만 교수진 전원이 공모전에서 수상했거나 만화 상을 받은 작가 출신이라는 것이 우리 학과의 장점입니다.

**Q. 마지막으로 웹툰만화콘텐츠학과를 같이 이끌어 나가게 될 학우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여러분이 우리 학과를 선택하기 전부터 저는 여러분을 설레며 기다렸습니다. 작가, CEO, 웹툰 PD,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무엇이든 이를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함께 생활하며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저부터 즐겁고 기쁘게 수업할 생각입니다. 전주대 웹툰만화콘텐츠학과에 오신 여러분이 스스로를 행운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교수진도 최선을 다할 것이니 꿈을 향하는 길을 걷는 내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합시다.

기사 |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디자인 |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2024 학사 구조 개편



## 우리 대학 학과 명칭 변경 및 개편

- 적용시기: 2024학년도 1학기 부터

단과대학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인문 콘텐츠 대학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역사콘텐츠학과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창작학부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신설
의과학대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식품영양학과	
	환경안전생명과학과	환경생명과학과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신소재화학공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	산업공학과	폐지
문화융합대학	경기지도학과	데이터공학과	신설
		축구학과 태권도학과	분리 및 신설
문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	
미래융합대학	기술경영공학과	미네르바학부	학부제
	문화콘텐츠학과		
	-	반려동물학과	신설
	-	친환경자동차학과 로컬벤처학부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총 5개의 학과를 신설하고, 8개 학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학사 구조 개편을 시행한다.

신설된 학과 및 학부로는 인문콘텐츠대학의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데이터공학과, 미래융합대학의 △반려동물학과 △친환경자동차학과 △로컬벤처학부가 있다.

인문콘텐츠대학 △웹툰만화콘텐츠학과는 전북 특별자치도 내 유일한 스토리 중심의 웹툰 학과로, 웹툰뿐만 아니라 웹스토리 제작 및 어학, 문학, 역사 관련 학문을 연계해 교육하기에 인문콘텐츠대학에 소속됐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데이터공학과는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하는 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교육하고 데이터분석 관련 자격증 취득을 보조해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융합대학의 △반려동물학과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한 반려동물 관련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친환경자동차학과는 기후 위기에 필요한 미래 모빌리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산·학·연 연계 교육으로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로컬벤처학부는 레저 산업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힐링레저전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획 능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로컬비즈니스전공'

이 있다.

한편, 식품영양학과, 신소재화학공학과,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의 미래에너지공학과와 한국어문학창작학부의 웹문예창작전공은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교과목을 개편했다.

명칭이 변경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인문콘텐츠대학의 △역사문화콘텐츠학과는 역사콘텐츠학과로, △한국어문학과는 한국어문학창작학부로 변경했다. 의과학대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는 식품영양학과로, △환경안전생명과학과는 환경생명과학과로 바뀌었다. 공과대학의 △기계자동차공학과는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로,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는 신소재화학공학과로 변경됐으며, 문화융합대학의 △경기지도학과는 축구학과, 태권도학과로 분리됐다. 문화관광대학의 △외식산업학과는 외식산업조리학과로 변경됐다. 미래융합대학의 △기술경영공학과와 △문화콘텐츠학과는 미네르바학부로 통합됐다.

기사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디자인 |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 2024-1학기 신임교수 소개



**최영철**  
수퍼스타칼리지 / 융합학부



**류정훈**  
인문콘텐츠대학 / 일본언어문화학과



**유인혁**  
인문콘텐츠대학 / 한국어문학창작학부



**임재서**  
사회과학대학 / 상담심리학과



**황주희**  
경영대학 / 회계세무학과



**한선진**  
공과대학 / 건축공학과



**박문철**  
문화융합대학 / 영화방송학과



**이정일**  
문화융합대학 / 생활체육학과



**이정훈**  
문화관광대학 / 외식산업조리학과



**김성연**  
사범대학 / 수학교육과



**복헌수**  
사범대학 / 중등특수교육과



**나형철**  
미래융합대학 / 반려동물학과



**김시열**  
미래융합대학 / 로컬벤처학부

# 사범대학, 2023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단기해외교육봉사 소감문

## 나의 행복했던 라오스



김현진  
(국어교육과 19)

처음 라오스 해외 봉사 프로그램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행복과 걱정이 있었다. 특히, 시험 기간 지도안 작성을 해야 했기에 상당한 부담감이 와닿았다. 그러나 한국어반 인원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꾸준한 교수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국어 수업을 계획해 나갈 수 있었다. 이로써 라오스 교육 봉사과 관련된 준비를 끝냈다.

대망의 라오스 출국 날 나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라오스를 향해 떠났다. 그렇게 6시간 정도의 비행을 거쳐 라오스에 도착했다. 비엔티안 이후 루앙프라방으로 이동하고 숙소에서 짐을 정리한 우리에게는 첫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첫 수업이 시작되었고 우리에게는 첫 번째 시련이 있었다. 학생들의 수준이 우리의 예상보다 높았고 이들에 맞게 큰 틀은 유지하되 지도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어반 모두가 약 1주일 정도 수업 지도안을 전반적으로 오전 수업 이후, 교재-교구실에서 담당 주 교사들이 수업을 재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저녁에 나머지 단원들이 이에 대하여 질문 및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3~4학년들 위주의 수업 한 주가 끝났다.

주말에는 현지 학생들과 문화 교류 및 문화 체험의 날로 진행이 되었다. 첫 주차는 때마침 라오스의 다양한 민족 중 하나인 몽족의 축제가 있는 날이었고 우리는 라오스의 몽족 학생들과 같이 몽족 문화를 체험했다. 그중 공 던지기는 참으로 신기했다. 계속 공을 주고받으며 질문, 답변하는데 자신과 잘 맞다고 생각되면 연인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2주 차,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1~2학년 친구들이 수업을 듣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기존 2개의 분반에서 1~2학년 교실 2개, 3~4학년 교실 1개로 기존의 지도안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 조절을 통해 각 반에서 진행하였다. 1~2학년 경우는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어휘 및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에 조금은 더 시간을 할애하였다. 또한, 1학년은 한 주라는 시간만 주어져 이론 중심에서 활동 중심 수업으로 진행하였고 그와 더불어 기본적 어휘, 발음 부분을 더욱 중점적으로 하였다.

3주 차에는 다시금 2~4학년 학생들 2개의 반으로 구성되었다. 남은 주차는 문학 위주의 수업이었고, 한국어 팀 수업의 꽃이었던 연극은 학생들, 현지 교수님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

었던 것 같았다. 학생들이 연극을 처음 배워본다고 했으며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이 대본을 숙지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극에 있어 동작 및 대사 등의 기본적인 연극의 진행 방식을 같이 지도하였다. 연극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교육 봉사를 통해 얻은 것은 급박한 학교 상황에 맞춰 지도안을 수정할 수 있는 임기응변의 능력이었다. 또한, 교사로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더욱 좋은 수업을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했다.

지금도 학생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일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학생들은 한국어 관련 질문을 한다. 자신들이 수업 시간 배운 내용들 중 어렵거나 복잡한 단어들 즉, 번역기를 사용해도 완벽하지 않은 의미에 관한 질문이었다. 나는 학생들이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학생들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설명해 주었다. 학생들은 확실히 현지 교수님의 설명보다 이해가 더 잘 된다고 했다. 내게는 상당히 보람찼다. 나에게 있어 라오스는 새로운 경험을 넘어 삶에 있어 하나의 원동력이자 소중한 인연임을 틀림없다. 그렇기에 나는 이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PAGE 1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라오스에서 채운 나의 그릇



조효진  
(중등특수교육과 21)

2024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길다고 생각하면 길고,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한 달간의 교육봉사가 끝이 났다. 문화·예체능 팀의 첫 수업으로는 라포 형성을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였다. 우리는 라오스에 오기 위한 사전 교육을 받을 때 배웠던 것들을 사용했다. 서로의 이름을 알아보기 위한 “스타가워바워보”. 처음에는 친구들이 부끄러워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못했지만, 선생님들이 더욱 열심히 해주니 학생들도 함께 재미있게 참여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교사로서 느낀 점이다. “학생의 적극적인 활동을 끌어내려면,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 줘야 한다는 것”

여러 가지 수업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전통 놀이와 K-POP, K-food 수업이었다.

전통 놀이 수업에서는 사실 그들이 한국어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라오스 학생들이 나보다 더 잘할 줄은 몰랐다. 시범 선생님이 바뀌어야 할 정도로.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되었던 K-POP 수업! 보통 K-문화 수업을 할 때에는 항상 노래와 춤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수업만 보았다. 하지만 나는 이들이 케이팝을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일지, 그들의 방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가 궁금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튀어나온 아이디어는 뮤비 제작이었다. 문화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제작 기술까지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직접 카메라 감독, 음악 감독, 작가, 아이돌 등의 역할을 하며 점점 그들의 열정이 뮤비 속에 담겼다. 그들의 열정이 담긴 뮤직비디오는 수과누봉 대학교 홍보영상으로 쓰인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왔다.

한국에서 사전에 준비해 가진 않았지만 특별 수업으로 편성된 K-푸드 수업! 어떤 수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학생들의 떡볶이와 김밥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우리에게 큰 과도로 밀려왔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싶은 우리의 열정이 담긴 수업이었다. 5일도 안 남은 일정 속에 김밥과 떡볶이 각각 100인분 재료를 준비해야 했고, 수업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현지에는 없는 재료들도 많아서 참 막막했다. 그래도 우리 예찬 오빠, 희우, 연재 모두 다 같이 매일 밤 회의를 거쳐 드디어 디데이가 왔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특별 수업을 마칠 수 있었다. 아마 이 수업은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수업이었을 것이다.

20명 가까이 되는 단체의 팀장과 문화 예체능 팀장이라는 직책도 맡아 가볍지만은 않은 봉사였다. 팀장으로서 라오스 해외 봉사 단원이 된 순간부터 단원들이 교육에만 몰두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더욱 더 긴장하고 나에 관해서는 더 엄격하게 반응했다. 시작부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모든 단원이 안전하게 귀국했다는 것에 감사하다.

라오스에 다녀온 후 면접 봤을 때가 생각이 났다. '이번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 그에 대한 답으로 나는 '나'라는 작은 그릇으로 예비 교사로서 얼마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사실 이번 봉사를 통해 '나'라는 그릇이 얼마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는 확정 짓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교사로서, 선배로서, 친구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이로써 내가 앞으로 완성할 그릇의 한 조각이 채워진 것이다. 다음 조각을 채울 곳은 어디일까?

Page 1! 우리의 페이지는 우리가 썼다~!!!



### 인생의 한 페이지(In Laos)



오현수  
(과학교육과 19)

드디어 라오스로 단기 해외 교육 봉사활동을 하러 갈 인원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았다. 이 공지를 보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라오스에서 한 달 동안 교육 봉사활동이라니...! 정말 생각만 해도 설렘만 가득할 것 같았다.

나는 전공을 살려 수학·과학·기술(ICT) 팀이 되었다. 수학·과학·기술(ICT) 팀은 이민우, 이태은, 박수빈, 신이수, 김인중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수학·과학·기술(ICT)팀의 회의 시간에 라오스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나 수학, 과학, 기술 실력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았었다. 그래서 교수님과 과의 슈퍼바이징 시간을 통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야 좋을지 많은 피드백을 받았다.

라오스에 도착하고 처음 만난 수파누봉 대학

생들은 한국어학과의 3, 4학년들이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학생들은 우리들의 말을 잘 알아들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알아듣고 이해하는 한국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한다면 우리의 수업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기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수학·과학·기술(ICT)팀의 첫 번째 수업의 주교사는 나왔다. 처음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설레서 빨리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첫 수업의 주제는 바둑알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다. 좌표를 이용해서 바둑판에서 진행되는 오목과 따목 수업을 진행했다. 한국어로 '바둑알'이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바둑알을 실제로 보여줬을 때는 이게 무엇인지 바로 이해해서 놀랐다. 1차시에는 한국의 전통 놀이인 오목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게임의 룰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옆에서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규칙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학생들이 오목이라는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수업 계획은 1차시 때는 오목, 2차시 때는 오셀로, 3차시 때는 따목을 진행하려 했는데,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이 생각보다 오목을 즐겼기 때문에 오셀로는 수업에서 빼고, 바로 따목을 진행하였다.

2주 차가 되었을 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였다. 1, 2학년 친구들이 교실에서 자리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친구들은 거의 한국어 소통이 되지 않았다. 회의를 통해 조별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학생을 한 명씩 배치해서 우리의 말을 통역할 수 있게 계획했다. 처음에 계획했던

수업 시간에 비해 수업이 길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수업은 잘 진행되었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3주 차가 되었을 때는 1, 2학년 친구들은 군복무를 하러 가고,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다. 새로운 학생 중에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 큰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았다.

마지막 날에는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학생들을 보았다. 그런 학생들을 보며 수료식 때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몽클하기도 했고, 너무 아쉽게 느껴졌다.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수업을 진행할 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수업 시간의 배분과 활용,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목소리 등 아직도 수업을 진행하기에 미숙한 부분들이 많다고 느껴졌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교육 봉사는 불과 한 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인생을 변화시킬 큰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나 또한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망설임 없이 참여할 것이다.



## 전주대학교 채플 안내



우리 학교에서는 '기독교 정신 구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재학생이 채플을 4회 이수해야 하는 교과과정이 있으며, 이를 위해 네 가지 채플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각 채플에서는 테마와 특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채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각 채플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 ▶ 성품채플, 소그룹채플

성품채플, 소그룹채플은 한 학기에 7개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1년에 총 14개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건학이념을 구현한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과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고, 학생들에게 내면세계의 질서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신앙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문화채플

문화채플은 문화를 도구로, 매주 주제를 정하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는 비신자 전용 채플이다. 슈퍼스타홀에서 진행되는 문화 채플은 담당 교수의 라이브로 유행가에 기독교적인 가사를 채운 콘트라팍트의 방식을 이용한 노래를 부르고,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토크콘서트 형식의 결합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들 한명 한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에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과 복음이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늘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채플이다.

### ▶ 부흥채플

부흥채플은 신자 전용 채플로 학생들의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대 사회 속 젊은 기독교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흥채플은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넘어서, 찬양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교류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며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신앙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비록 한 학기이지만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같이 만들어가는 채플이다.

선교지원실 오예찬(ssd5205@jj.ac.kr)

## 예배안내

###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도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바야흐로 봄이 무르익고 있다. 노란 영춘화가 화사하게 피어나더니 매화와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린다. 꽃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일깨워 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피어난다. 엄동설한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따라 활짝 피어나는 꽃들이 그저 감사하다.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꽃피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믿음은 그 어떤 것 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다.

▼ 우화이다. 최고 부자를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내일 어디 어디에서 도사를 만날 터인데, 그를 보면 "보물을 주시오"라고 말하라고 했다. 다음 날, 이 사람은 도사를 만났다. 다짜고짜 "보물을 주시오"라고 하니 도사는 아무런 말도 없이 바람에 있는 보물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바로 가던 길을 휘적휘적 걸어갔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얻은 그는 서둘러 도사가 가는 길 반대쪽으로 달려갔다. 처음에는 도사가 보물을 돌려 달라고 쫓아올까 봐 걱정했으나, 이제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두려웠다. 땀을 뻘뻘 흘리며 도망치듯 달려가던 그가 걸음을 멈췄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급히 발길을 돌려 도사가 사라진 쪽으로 켄 걸음을 놓았다. 수소문 끝에 객사에 머무는 도사를 찾았다. 네 활개를 벌리고 편히 잠들어 있는 그를 깨웠다. 품에서 보물을 꺼내든 그가 말했다. "이것을 도로 가져가시오. 대신에 이런 보물을 생면부지에 선했 내 주고도 이렇게 평온한 당신의 그 부요함을 나에게 주시오."

▼ 전주대학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이 있다. 보물 같은 약속이다. 양쪽 합의로 만들어 낸 약속이 아니라 아무 요구가 없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일방으로 주신 약속이다. 그러하기에 '대학 위기론'과 같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 가운데 그분의 약속은 '살아있는 부요함'이 된다. 2024학년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교에 주시는 언약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아멘.

장선철 교수 (前 상담심리학과)

## 기도문

###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할렐루야! 전주대학교와 함께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2024년을 허락하신 주님!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는 특별히 전주대학교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60년 동안 전주대학교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곳 가운데 이제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며 주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특별히 전주대학교에 보내 주신 많은 학생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학생을 전주대학교로 보내신 것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길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어찌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 대학 생활 가운데 채플과 기독교 교과목을 통해 그 안에서 섬기는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강력하게 전파되길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이곳 전주대학교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전주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 일에 협력하게 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전달자로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전파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 하나만이라도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학교로, 한 여름날에 냉수처럼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전주대학교 곳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가 들리며, 곳곳에서 기도하는 일들과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는 모임이 그저 평범하고 흔한 일상이 되는 그런 전주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희망 사항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이 일들을 목도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 전주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의 영광은 우리가 아닌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전주대학교의 2024년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범수 실장 (선교봉사처 선교지원실)

## 생각을 생각하다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

생각(광세, Pensées)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다. 생각으로 인해 인간은 본성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든다. 생각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간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의 국경선도 마음대로 출입하고 지구의 대기권도 수시로 뚫고 나가 우주의 다양한 별들을 방문한다. 어디를 가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고 출입 수수료도 없다.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타인의 마음을 더듬으며 엿보는 것도 가능하다. 무수히 많은 사물과 사건들을 마음대로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 이토록 놀라운 창조력을

지닌 생각은 조물주가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 사용법에 미숙하다. 사유의 근육이 부실해서 그 무한한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주어진 한계 속에서만 살아간다. 그런 인생은 답답하고 고달프다. 우리는 생각이 자라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생각의 근육이 자라도록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생각의 장인이 인생의 장인이다. 인생은 사유라는 자유의 산물이다. 생각이 그리는 궤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은 곧 인생이요 인생은 곧 생각이다.

공부는 생각의 다른 이름이다. 아이작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은 모두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다만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한 가지를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해서 생각했을 뿐이라고 고백한다. 어떠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이다. 생각은 인생의 양식이고 인생은 생각의 토양이다. 생각 없는 삶은 무모하고 삶 없는 생각은 공허하다. 건강한 생각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의 조각을 발굴하고 이해하고 체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체득된 진리 조각들의 총량은 인생의 몸무게다. 그런데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의 가벼움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그럴수록 생의 무게를 키우는 사유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 그래서 삶의 여러 국면을 이전보다 더 꼼꼼하게 관찰한다. 그럴수록 이전에도 보았으나 그냥 지나간 아름다운 의미의 조용

한 보석들이 이제는 눈으로 들어와 걸음을 붙잡는다. 그 보석들을 문장으로 채굴하여 담은 나의 모든 저술은 나의 인생에 스며든 생각의 소중한 열룩이다.

인생의 모든 골목은 사유의 보석들로 빛난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는다. 이것이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감사의 무릎을 조아린다. 어제는 생각이 어둠의 꼬리를 물고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답답한 시선을 밖으로 꺼내려고 투명한 사각 창으로 다가갔다. 늦은 밤인데도 자동차가 많다. 바퀴 달린 문명이 지르는 어두운 절규가 창에서 부서진다. 창문은 이중간첩이다. 밖을 보는 나를 어둠이 밖에서 구경한다. 실내의 정보를 밖으로 빼돌리고 밖의 상황을 안으로 배달한다. 평범한 창문이 인생의 선생처럼 느껴진다.

인생의 눈금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생각의 키도 조금씩 자라간다.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사유 공부에는 나이가 들수록 절정에 다가가고 무덤에 이를 때까지 은퇴가 없다는 사실이 나의 웃음을 앞질렀다. 진실로 우리의 삶은 나이를 불문하고 하루하루 고조되는 배움의 연속이다. 그리고 생각은 유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에 모두 유용하다. 그래서 사유는 노후대책 용도로도 적격이다. 머리가 희어져도, 허리가 휘어져도, 이빨이 흔들려도, 시력이 나빠져도, 속도가 떨어져도 사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배우는

즐거움은 세월이 하얗게 될수록 더 커지기 때문이다. 종사하는 직업이 어떠한 성별이 어떠한 우리는 언제나 생각이 사는 인생이다.

생각의 거인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끊어내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귀띔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에 열광하며 자랑한다. 그러나 생각의 오지랖이 과도하게 넓으면 그만큼 본질적인 생각에 대한 집중력은 옥상에서 떨어진다. 지혜로운 생각의 크기는 믿음의 분량과 비례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섭리를 주목한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분야와 사안을 막론하고, 무엇이든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칭찬과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생각의 거인은 예수님을 생각의 종착지로 삼는다.

## 카리스마와 카리스

<쉽게 읽는 성경> ⑩



조재천 교수  
(선교신학대학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곧 실시된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리더로서 활동해온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섬기겠다고 입후보했다. 유권자들은 각자의 신성한 한 표를 누구에게 줄지 고민이 된다. 누가 훌륭한 지도자인지 분별하는 일이 그리 간단치가 않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서류상 이력을 봐야겠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다 알 수 없다. 거리에서 유세하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지만 요즘 같은 세상엔 TV 방송이 아니라도 유튜브나 SNS에 올려진 영상을 통해 후보자의 얼굴과 말씨, 표정도 관찰할 수 있다. 낯선 사람이라도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면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는 것과 다른, 생생한 느낌과 인상을 받게 된다. 사람에게서 풍기는 느낌, 어떤 분위기와 에너지, 힘 같은 것들은 사람마다 다른데, 특히 지도적 위치에 있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인상을 우리는 흔히 카리스마라고 부른

다. 카리스마는 O, X 문제의 답과 같다. 어떤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거나 혹은 없는 것이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바울은 그의 제자이며 동역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디모데가 받은 ‘은사’(카리스마)를 거론한다. 바울이 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은사’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그것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은사’는 일종의 신적인 능력이나 기술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예언이나 방언, 지식이나 지혜의 은사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고린도전서 12장). 자연 상태의 인간이 가진 인식 능력이나 언어 능력을 넘어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끌어가시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바로 ‘은사’에 속한다.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즉 목회자로 임직할 때 그런 은사 중 하나를 부여받았을 수 있다.

신비롭고 초월적인 능력이 ‘카리스마’라고 규정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물은 노력이나 비용에 따른 대가의 반대 개념이다. 노력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진 것을 ‘카리스마’라고 한다. 거저 주어졌지만, 그것은 무가치하거나 사소하지 않다. 오히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특별하다. It is

invaluable, not valueless!

디모데가 목회자로 임명될 때 받은 은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역 교회의 지도자로서, 신앙공동체의 리더로서 그에게 필요했던 어떤 것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만을 돋보이게 만들고 스스로 우월감에 취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기보다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느끼게 해서 그를 존경하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크고 작은 공동체와 조직의 리더에게 기대하는 ‘카리스마’와 완전히 다르지 않을 것이다.

카리스마는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다. 말을 권위 있게 하거나 표정을 권위 있게 짓는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듯, 카리스마는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풍겨 나와서 사람을 사로잡는 어떤 힘이다. 종종 그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원천을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 카리스마는 가져 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카리스마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어쩌면 진정성(authenticity)이라고 말할 수 있다. 꾸며 내지 않은 진짜 공감, 진짜 열정, 진짜 신념이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고,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고, 행동하게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진심과 위선, 순수와 거짓 사이를 끊임없이 넘나든다. 확신에 찬다가도 금방 주저하게 되고, 자기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할 방도는 찾는 것이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다. 작은 공동체 혹은 큰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바로 그 평범성을

탈피해야 한다.

뛰어난 리더가 다 기독교인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누구나 카리스마를 지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공동체를 섬김으로써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례받으면서 물 속에 온몸이 잠길 때 기독교인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중생(重生) 혹은 회심(悔心)을 의례화(ritualize)한다. 껍데기와 가식,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인생, 욕망의 충동로 점철된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묻어 버린 다음, 하나님이 지으신 원초적이고 고유한, 가장 자기다운 삶, 가장 인간다운 자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고 체험이다.

그리스어 명사 ‘카리스마’ 속에는 또 다른 명사 ‘카리스’가 들어 있다. 그것은 우리말로 흔히 ‘은혜’ 혹은 ‘은총’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이다. 하나님에 의해 빚어지고 새로 태어난 존재로서 거저 받은 사랑, 용서, 능력을 통칭해서 ‘은혜’라고 한다.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갚히거나 고여 있지 않고 넘치고 흘러가는 속성을 지닌다. 카리스를 받은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카리스를 베푼다. 어쩌면 거기에 카리스마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 모른다. 카리스 없는 카리스마는 독선적이고 폭압적일 수 있다. 다른 이들을 이용하고 소외시키는 카리스마는 사회악이며 공동체의 독소이다. 카리스로 방향 지어진 카리스마가 진정한 카리스마이다.

## 기자칼럼

## 긱시크한 젠틸몬스터, 혹시 설레세요?



하늘 기자  
(neul0603@jj.ac.kr)

패션계가 주목하는 2024 트렌드는 긱시크다. 긱시크란 괴짜를 뜻하는 긱(Geek)과 시크(Chic)의 합성어다. Geek은 1980년대에 자리했던 단어로, 한 분야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아는 것이 많지만, 일반적인 사회성은 부족한 사람을 일컫고 있다. 이는 모범생이지만, 여성들의 이상형으로 자주 언급되는 너드(nerd)남과 비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Chic를 더한 Geek이 추구하는 이미지는 너드(nerd)와 다르다. 일명 엄친아, 엄친딸처럼 공부뿐만 아니라 놀 줄도 아는 육각형의 인재상을 추구한다. Chic의 본뜻인 세련됨에 초점을 맞춘 Geek이 바로 긱시크인 것이다.

긱시크룩은 모범생을 표하는 단정한 옷차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범생이나 괴짜가 쓸 법한 두꺼운 뿔테안경이나 특이한 신발 등을 착용해 자신만의 개성과 고급스러운 면모를 뽐낸다. 긱시크룩의 유행과 더불어 토종 브랜드 젠틸몬스터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젠틸몬스터를 알면 MZ의 소비 행태가 보인다. 그리고 그들을 공략하는 방법을 더욱 자세히 배울 수 있다. 젠틸몬스터는 블루 오션에 대한 모색에서부터 시작됐다. 브랜드 설립 당시 아이웨어는 정제 시장이나 다름없었다. 수요가 많은 안경에 비해 안경을 전문 판매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일반 안경원에 방문하여 진열된 안경테를 착용해 보고 구매하는 게 전부였다. 게다가, 안경원마다 보유 재고가 상이했기에, 디자인 선택 기회도 한정적이었다. 아이웨어도 패션의 한 분야였지만 패션업계는 아이웨어에 집중하기보단 다른 부가적 요소만 찾기 바빴 뿐이었다. 이때 젠틸몬스터 김한국 대표는 패션계의 빈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이웨어 업계의 한 획을 긋기 시작했다.

2014년, 한류의 흥행을 일으킨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속 주인공 천송이역을 맡은 전지현은 젠틸몬스터 선글라스를 착용한 바가 있다. 젠틸몬스터 측에서 단순 선물로 제공한 선글라스를 드라마 촬영 소품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젠틸몬스터 선글라스 아시아 전역 품질 대란 사태를 가져왔으며, 젠틸몬스터의 제품이 '머스트해브 아이템'으로 불리는 계기가 됐다.

일반적인 브랜드의 공식이라면, 흥행을 맞이할 시기에 제품을 대량 생산할 것이다. 하지만 젠틸몬스터는 타 기업들과 접근 방식을 달리했다. 인기를 이용한 한 철 장사보단 장기전을 노린 셈이었다. 젠틸몬스터는 제품 판매 대신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였다. 김한국 대표는 매장

이 고객들의 놀이터가 되기를 원했다. 갤러리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초현실적 예술품을 진열해 매장 방문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렸으며, 이에 따라 젠틸몬스터 매장은 관광명소처럼 떠오르게 되었다.

젠틸몬스터는 봄·여름(S/S)과 가을·겨울(F/W) 두 번에 걸쳐 신상품을 내놓는 패션 브랜드 컬렉션도 모방했다. 아이웨어에 불과했지만, 정기적인 컬렉션을 선보이며 고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아이웨어가 정제 시장이었던 때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다. 젠틸몬스터라는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도록 세일 또한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명품관이 즐비해 있는 백화점 1층까지 섭렵하게 되었다. 또, 매출의 75% 이상은 해외 고객이다. 이는 해외의 명품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필자는 압구정 혹은 성수동을 즐겨 찾는다. 방문 경로는 매번 같다. 젠틸몬스터를 포함하여 템버린즈 매장과 카페 누데이크에 방문하는 일정이다. 젠틸몬스터와 한 지붕을 이루는 템버린즈와 누데이크 역시 사람이 붐빈다. 크루아상과 케이크를 접목한 누데이크 시그니처 메뉴 피크(PEAK) 케이크처럼 김 대표는 이전에 없던 새 역사를 만들어 내는 데에 집중한다. 그의 창조성을 볼 때면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이처럼 김 대표가 운영하는 전 계열사는 MZ의 큰 환호를 받고 있다. 젠틸몬스터와 템버린즈, 누데이크에 처음 방문했던 그 순간의 설렘을 잊지 못해 재방문하는지도 모른다.

김 대표가 과거 진행했던 강연 제목 중 하나는 <세상을 놀라게 하라>였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한다. "설레세요?" 김 대표의 설렘은 대한민국 MZ 세대의 설렘으로 뒤바뀐다.

신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어떤 일을 할 때 설레세요?" 설렘은 꽤 가까이 있다. 필자의 설렘은 글이다. 김 대표의 정신처럼 고리타분한 문학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포부가 있다. 문학이 놀이터가 되고, 전 세계가 문학의 재발견에 놀라는 그날까지 필자는 쓰고 또 쓸 것임을 다짐한다.

한 분야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지킨 젠틸몬스터 김한국 대표야말로 긱시크의 대표 주자가 아닐까 싶다. 긱시크룩뿐만 아닌 긱시크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기자칼럼

## '늦음 없는 배움'이 아우성치는 시대



김주은 기자  
(202315018@jj.ac.kr)

요즘처럼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때가 있을까.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평생교육'은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모든 교육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교육을 말한다.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은 2022년 출생자 기준 평균 82.7세의 기대수명을 기록했고, 우리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분야에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개인은 기존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응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은 더 이상 특정 생애 주기에 국한된 과업이 아닌, 평생 진행되는 삶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진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 분위기도 변했다. 이제 성인 학습자는 드문 존재가 아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체와 각종 센터가 설립됐고, 강의실에서 만학도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은 일상이 되었으며,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전담 대학 기구, 단과대학, 학과들이 신설되고 있다.

이 변화는 그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하나 둘 세상 밖으로 이끌어, 이들이 적극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바로 여성 만학도들의 목소리다. SNS에 연재되는 만화, 출퇴근길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유튜브 브이로그, 각종 신문 기사와 인터뷰, 일상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유독 이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학도는 나이가 들어 뒤늦게 공부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만, 이제 공부에 '뒤늦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시대 상황, 분위기,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했거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배움에 대한 열망을 이루고자 학업에 도전한다. 혹은 이미 은퇴했거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학위를 취득하고 새로운 꿈을 이루고자 학교로 돌아온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중·노년 여성의 경우 과거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 통념으로 인해 자의, 혹은 타의로 학업을 포기하고 곧장 경제생활을 시작하거나, 가사에 전념했던 사례가 많다. 그러나 줄곧 바라던 학업 기회가 열렸다 하더라도 선뜻 뛰어들기란 쉽지 않다. 센터에서 스마트폰 사용이나 자

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는 것 또는 한글 쓰기를 연습하는 것과 만학도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서는 보통의 학생들보다 많은 나이에 본격적으로 학업을 시작한다는 부담감이나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한 걱정, 가정에서 소홀해지는 것을 염려하고 질책하는 주위의 시선, 혹은 반평생 돌보던 가족에게서 잠시 눈을 떴다는 사실이 주는 어떤 죄책감 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미 공부 중이거나, 공부를 끝내고 제2, 혹은 제3의 인생을 시작한 여성 만학도 선배들의 이야기는 반갑기까지 하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타인의 경험담을 많이,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간호학과 만학도 어머니를 둔 인스타툰 작가의 페이지에는 종종 '이 만화를 보고 용기를 얻어 나도 도전하게 되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많이 노출되고 회자될수록 이에 용기를 얻어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이후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여성 만학도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들은 저마다 학업을 선택한 이유나 만학도로서 겪은 일, 학교생활, 앞으로의 목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털어놓는다. 이들이 전하는 공통된 메시지는 결국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늦지 않았으며, 충분히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하는 목소리들이 마치 아우성처럼 거세다.

이렇듯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이 주목받고,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를 겪으며, 도전을 긍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요즘이다. 이에 발맞춰 노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한 가지 인생만 살기에는 긴 생애를 살아간다. 수많은 제2, 제3의 삶들에 야망없는 응원을 보낸다.

## 교수칼럼



유인혁 교수  
(한국어문학창작학부)

## 공감 권하는 사회

두 손바닥을 T자로 교차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 T야?”

이 밈은 MBTI(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 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 검사의 T 타입을 희화화한 것이다. MBTI 검사는 인간의 판단 기능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T(사고형)로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타입이다. 또 하나는 F(감정형, Feeling)로서 인간 관계와 상대방의 감정 등을 우선시하는 타입이다. 그리하여 “너 T야?”라는 언술은 동정, 위로를 원하는 사람에게 눈치 없이 사실관계를 따지고 드는 사람을 비난하는 용법을 가지고 있다.

많은 대중적인 유행어가 그러하듯 “너 T야?” 역시 우리 사회의 심오한 문화적 층위를 보여준다. 이 밈은 우리 사회가 바야흐로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배려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넌지시 알려준다. 이른바 ‘정의 민족’이라는 자화자찬이 무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공감력 없는 괴물에 대한 으스스한 사연들이 만연하다. 몸이 아파 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기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나’라며 으름장을 놓는 상사나,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온갖 막말을 던지는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흔하다. 심지어 우리는 이태원에서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성적인 모욕을 가하는가 하면, 유가족들에게 자식을 못 말렸다고 일침을 놓는, 그런 괴물들과 함께 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 T야?”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력과 배려심을 계발할 필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많은 유행어가 그러하듯 “너 T야?” 역시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 밈이 이른바 T 성격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멸칭이어서 혐오 발언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타자화의 방식은 T 유형, 혹은 그러한 유형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열등하거나 적어도 비사회적이며 비협조적인 부류로 낙인찍는다.

썬 야오(Xine Yao)가 그의 저서 <탈정동(Disaffected)> (Xine Yao, *Disaffected*, Duke University Press, 2021)에서 다시금 강조한 바에 따르면, 공감은 종종 배제의 정치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사람들의 공감력은 극히 차별적으로 발휘된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가까운 존재들에게 공감한다.

나는 길에서 마주치는 귀여운 고양이들에게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평생 보지 못한 산호초에는 덜 공감한다. 우리는 근처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공감한다. 그러나 먼 나라의 난민에게는 덜 공감한다. TV에서 피부색이 다른 어린이의 고통을 호소하는 공익광고가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볼멘소리를 한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이다.

이때 공감은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경계를 긋는 문화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그것은 사회의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타자화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먼저, 그다음은 우리와 가까운 존재들에게 공감의 영역을 확대한다. 즉 비슷한 처지의 존재들에게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과 같은 타국, 우리 사회 안의 이민자, 반려동물 이외의 짐승들에게는 얼마든지 냉정하거나 혹은 가학적으로 될 수 있다. ‘우리가 남인가’라는 정서는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작동하며, 그 영역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차별을 야기한다.

다시 MBTI로 돌아가 보자면, 우리 사회의 주류로 전제된 F들은, T들에게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너 T야?”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이 사회의 주류인 나(F)에게 그들(T)을 배려하거나 포용할 마음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만약 F가 진실로 F라면, 공감하기 어려운 대상을 이해할 때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가장 진실한 공감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타자에게 미칠 때 그 빛을 발한다. 우리는 다른 성(性)의, 다른 세대의,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에게 공감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심지어 인간은 다른 종(種)의 동식물에게 사랑을 쏟고, 그들의 생로 병사에 공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다.

이제 신학기다. 모든 사람들이 낯선 이들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에게 끌린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다. 하지만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공감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보자. 적어도 “너 OO야?”라고 선을 긋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너만의 인생을 꿈꿔봐  
그게 바로  
앞서가는 선택이야  
국가대표 대학생,  
ROTC



ROTC



모집일정 2024. 03.04. -04.26.

모집기준 남녀 1, 2학년 재학생

문의처 전주대학군단 063) 220 - 2472 / 2492

## Jeonju University Holds New Student Adaptability Enhancement Event for 2024 School Year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that it will hold an event to strengthen adaptability for freshmen in the 2024 school year at the student center for two days from March 5 (Tuesday) to June (Wednesday).

〈Jeonju National University 2024 New Student Adaptability Event〉 prepared a total of 30 colorful booths for freshmen to enter the university, promote strong relationships through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various club activities with seniors and colleagues, guarantee a wide range of learning options through the provision of career and major exploration opportunities, and enjoy various institutions and benefits necessary for college life.

In particular, the Student Employment Office prepared the event with a focus on bringing out the new student's self-directed potential by allowing new students to select and visit peer activities (central clubs), career and major search fields, and college life support fields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and interests.

President Park Jin-bae said, "This is a meaningful event for freshmen who enter Jeonju University to take their first steps into schoo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are all already the only sensible beings in this world that are distinguished from others from their birth. Jeonju University will provide university education so that each new student can independently design his or her own life, and furthermore, I believe that cultivating new students as talented people used in society as future superstars is the role of the university and the way to true student success."

On the other hand, Jeonju University obtained the highest S grade in the first yea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and is striving to become a glocal university by playing a role as a prestigious local university, such as cultivating creative and convergent talents by guaranteeing a wide range of major and learning options for freshmen.

article Student employment office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 Jeonju University Has Selected the Highest Number of Industry-Academic-Government Coupling Projects for 10 Consecutive Years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on the 29th that it has been selected for a total of six courses in the "2024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upling Project" supported by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Kim Kwan-young) and has been selected for the most in 10 consecutive years among universities in the province.

Jeonbuk Special Self-academic cooperation project is a project that starts from 2007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operated by universities and internship system and internship customized professional personnel-related personnel.

Jeonju University selected the ▲ Culture and Tourism Content Education ▲ Regional-based ICT Management Education ▲ Living Lab-based cultural content education ▲ Carbon Technology Convergence Education ▲ ICT Convergence Smart City Education ▲ AI (Artificial Intelligence) curriculum in 2024, with a total project cost of 627 million won in 2024.

In 2024, a total of 253 people from 15 departments will participate in the Jeonju University Coupling Project Group, and it aims to provide customized practical training and field training in connection with 350 companies and achieve an employment rate of more than 80% with the companies through employment contract-type programs.

Kim Sang-jin, head of Jeonju University'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said, "At the time of transition to a regional innovation-oriented university support system (RISE), we will continue to cultivate talented people who drive corporate growth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with industry-academic centers, lea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more, and move toward Glocal University."

articl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 Jeonju University Signs MOU on Business Agreement Linked to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for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LiFE 2.0)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Future Convergence University announced on the 14th that it has signed a business agreement linked to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LiFE 2.0).

Future Convergence University successfully promoted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LiFE 2.0) linked to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t the LiFE 2.0 project participating university job training and type-specific council integration workshop on Wednesday, March 13 (Wednesday) at the Paradise Hotel in Busan. For this purpose, business agreements were signed with a total of 10 universities, includi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Kyungil University, Daegu Catholic University, Dongshin University, Mokpo National University, Sangji University, Seowon University, and Howon University.

In this agreement, each university agreed to cooperate with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and jointly cooperate in the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in the local community, lifelong education research, student exchange, and field trips. It also includes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ach institution through joint development of adult learner-friendly curriculum and credit exchange sharing.

Han Dong-dong, Jeonju University of Jeonju University, said, "LiFE 2.0 metropolitan Government and cooper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high lifelong education system."

article Future Convergence University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 Jeon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ies, Department of Convergence Design Donated everyone Development Fund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Industry,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nounced on the 5th that it donated 5 million won in development funds for the department and school.

The delivery ceremony of the development fund was held with eight officials, including Professor Lim Chul-min and Jeon Hye-kyung of the Department of Convergence Design, graduate student representative Cho Yoojung and Hong Youngshin, President Park Jin-bae, and Vice Foreign Minister Yoon Chan-young.

The development fund has been delivered with a combination of love for the department by accumulating prize money for competitions collected by graduate students and graduates, examination fees for professors' competitions, and external consultation fees.

Lim Chul-min, a professor of convergence design, said, "It is difficult for students to love their department with the power of one or two people. As a result of interest stemming from the idea that everyone is us, we believe that our small start from interes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chools and communities."

President Park Jin-bae said, "It is beautiful to see professors, graduate students and graduates join forces for the department, and I will use the fund that the members who love the department and the school cherish, and I hope it will continue to be a more advanced department."

On the other hand, the Department of Convergence Design at Jeon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Industry seek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 to each craft field (metal, woodworking, textile paper, visual information), and traditional crafts for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al crafts.

It seeks to maximize craft value and re-create design through a convergence approach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crafts and a visual design approach to maximize craft value, and produces talented professionals who cultivate practical craft experts in theory and the field and embody the value of tradition and transmission.

article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Industry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 서포터즈



모집기간  
03.22  
03.31

운영기간  
04.04  
10.31



## 창업, 소상공인에 관심 있는 재학생 다 모여라!

### 활동 내용

주 1건 이상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관련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현장 취재, SNS 공유 및 홍보

### 모집 대상

창업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전주대 재학생 누구나

### 접수 방법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서(첨부파일) 작성 후  
hyunkyu0504@jj.ac.kr 이메일 접수

### 활동 혜택

서포터즈 활동비 지급 및 창업마일리지 5점

### 모집 절차

1차: 서류평가(면접 대상자 개별 안내)  
2차: 오프라인 면접(4월 첫째주)  
최종: 최종 합격 발표

### 최종 발표

합격자 개별 연락

### 문의처

063-220-2843, 3196